

K팝 음반 제왕

스트레이 키즈가 온다!



지상파 첫 단독 프로그램 <설빔> '눈 떠보니 조선 시대' 무슨 일?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아주 특별한 선물이 찾아온다. 2025년 K팝 음반 초동 판매량 1위,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빌보드 음반 차트 '빌보드 200' 사상 최초 8개 음반 연속 1위 진입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K팝 음반 제왕'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KBS와 손잡고 지상파 최초 단독 프로그램 <설빔>으로 설 연휴를 뜨겁게 달군다. 알 수 없는 힘에 휘말려 조선 시대로 타임슬립 한 K팝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 2026년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미션으로 주어진 전통문화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과연 이들은 치열한 관문을 뚫고 다시 팬들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설빔

KBS

2월 16일(월) 저녁 8시 10분

전통과 K팝의 환상적인 만남 설 연휴 최고의 화제작 '기대'

설에 새 옷을 입는 풍습을 뜻하는 <설빔>이란 제목에 맞춰 출연자와 관객, 제작진, 심지어 경호팀까지도 전부 한복을 입었다. 스트레이 키즈 또한 색다른 콘셉트의 한복을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소화한다고. 전통문화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국내외 시청자가 함께 즐기는 K-컬처 콘텐츠가 될 <설빔>에서 스트레이 키즈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재미를 한껏 더해줄 진행자로는 자타공인 예능계 우수주 이수근과 대세 아이돌 박사 조나단이 출격한다. KBS와 스트레이 키즈가 마련한 설 특집 예능 <설빔>이 궁금하다면 2월 16일(월) 저녁 8시 10분, KBS 2TV 채널 고정!

KBS 설 특집 프로그램 상차림

글로벌 한인 기행 김영철이 간다

'히로시마의 거인'으로 불리는 재일동포 기업인 권양백. 미국 애틀랜타에 K-뷰티 산업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한 재미동포 기업인 박형권. 해외에서 맹활약하는 한상(韓商)들이 한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재외동포들을 위해 봉사하는 현장을 배우 김영철이 찾아간다.

2026 복 터지는 트롯대잔치

설 연휴에 절대 놓쳐선 안 될 성대한 축제가 펼쳐진다. 가수 이찬원의 사회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트로트 스타들이 '복(福)'을 전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뜨거운 함성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되고, 열정적인 무대가 희망의 메시지로 변하는 신개념 쌍방향 소통 트로트 쇼!

메주꽃 필 무렵

경상북도 예천군 학가산 마을에서 해마다 메주를 같이 쪄며 40년을 가족처럼 지내온 세 할매.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굶은일을 해왔지만, 언제나 유쾌한 웃음을 주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메주 할매 삼총사의 1년살이를 통해 삶과 가족의 의미를 돌아본다.

▶ 2월 17일(화)~18일(수) 밤 9시 30분 KBS1

▶ 2월 17일(화) 저녁 7시 40분 KBS2

▶ 2월 17일(화) 저녁 7시 40분 KBS1



전략적 기획·투자로 콘텐츠 경쟁력, 공영성 강화

KBS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점검하는 업무계획 보고가 경영진과 각 본부/센터/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박장범 사장은 “올해는 우리가 AI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을 수 없다.”며, “새로운 변화에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업무에서 힘든 부분을 시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니 좀 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KBS의 전략과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전략 기획실은 수입 기반 강화와 필수 사업 중심 비용 운용으로 올해 균형수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콘텐츠 경쟁력과 공영성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AI 기반 제작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개정 방송법 이행을 위한 방송편성규약 개정과 더불어 공사 경영과 연관성이 큰 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세계공영방송(PBI)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데이터에 기반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

프로그램 개발과 편성 전략을 총괄하는 콘텐츠 전략본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기획과 투자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을 확대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다각화해 수익성과 화제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멀티플랫폼센터는 핵심 사업으로 ▲킬러콘텐츠 권리 확보, 주요 플랫폼과의 협상 강화 등으로 콘텐츠사업 수입 목표 3,502억 원 달성, ▲광고 수

입 목표 1,572억 원 달성, ▲AI 기반 챗봇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대하드라마 <문무> 11월 첫 방송

드라마센터는 올해 대하드라마 <문무>를 야심 차게 선보인다. 몽골 현지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월 말 국내 촬영에 돌입했고, 11월 방송을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하드라마 명가로서 지속 가능한 제작 기조와 시스템 정립을 위해 대하드라마 TF를 꾸려 경쟁력 있는 소재와 인물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토요일 미니시리즈로 완성도 높은 작품 세 편을 엄선해 글로벌 한류를 선도하는 드라마를 선보이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동네 야구 대장> 4월 출격

예능센터는 공영방송 KBS에 걸맞게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4개 지역 프로야구단 출신 레전드 선수들이 감독으로 참여해 ‘리틀야구단’을 이끌고 불꽃 튀는 리그전을 펼치는 신개념 야구 예능 <우리 동네 야구 대장>을 4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뮤직뱅크 월드투어>는 올해 북미 공연을 본격 추진하고, 9월 바르셀로나, 12월엔 도쿄 공연을 연다. 지난해 대박을 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에 이어 올해도 국민 감동 대기희 특집 공연 제작을 추진한다.

화제의 다큐 <인재전쟁> 4부작 공개

교양다큐센터는 성물(聖物)을 매개로 인간 본연의 삶과 화합을 성찰하는 공사 창립 대기희 다큐멘터리 <성물> 4부작을 3월에 선보인다. 지난해 뜨거운 반향을 부른 다큐 인사이트 특별기획

<인재전쟁>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올해는 4부작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인재 쟁탈전을 심층 취재한다.

한국 가곡의 세계화를 겨냥한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K-가곡 슈퍼스타 2>를 추석 연휴에 공개하고, AI 영상복원 프로젝트 <우리의 얼굴> 2부작과 AI 휴먼 다큐멘터리 <로봇 춘자>를 통해 AI를 활용한 방송 제작을 선도할 계획이다.

프로야구 중계 금요일 정규 편성

스포츠센터는 지난해 <토요일은 야구가 좋아>라는 이름으로 프로야구 주말 경기를 2TV로 생중계한 데 이어 올해는 <불금야구>(가칭)를 통해 매주 금요일 밤, 가장 주목받는 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로 선보이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몰린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3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9~10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3월)을 독점 중계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방송에 AI 등 첨단 기술 활용

보도본부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심층성을 강화한 선거방송과 보도로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보고했다. 변화하는 유권자 행태를 반영한 출구조사 설계로 정확도를 높이고, ‘디시전K 플러스’ 고도화를 통해 타사보다 빠른 실시간 결과 예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래픽과 영상 제작 등에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인프라본부는 개표방송에서 대형 미디어 월, 터치스크린 인포그래픽, 증강현실(AR) 제작 기술 등을 활용해 타사를 압도하는 특수영상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겠다고 밝혔다.

<뮤직뱅크> 북미 시장 진출 시동

대한민국 대표 K-POP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가 팝의 본고장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 박장범 KBS 사장은 현지 시각으로 1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청사에서 캐서린 바거(Kathryn Barger) LA 카운티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슈퍼바이저와 K-POP 공연 개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S와 LA 카운티는 <뮤직뱅크> 연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K-POP을 매개로 한국과 미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A 카운티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88개 도시, 1천만 명 가까운 인구를 보유한 거대 경제·문화 권역으로, 세계적인 공연장인 할리우드 볼(Hollywood Bowl)이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 사



회가 형성돼 있어 K-POP 공연 최적지로 평가된다.

박장범 KBS 사장은 “2011년에 시작한 <뮤직뱅크 월드투어>는 15년 동안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각지를 돌며 K-POP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LA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K-POP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에는 큰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KBS와 긴밀히 협업해 LA 카운티에서 K-POP을 성공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장범 KBS 사장은 국제 협력 확대와 LA 카운티 지역 문화 활력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LA 카운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KBS 클래식FM <세상의 모든 음악> 손편지에 담은 진심!



매일 저녁 6시~8시 음악으로 청취자에게 위안을 전하는 KBS 클래식FM <세상의 모든 음악>이 새해를 맞아 '예쁜 손 글씨 뽑내기 대회'를 열었다. 1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진행된 이벤트 기간 중 100여 명의 청취자로부터 손 편지가 도착했다. '작품'이라 불릴 만큼 완성도 높은 편지부터 온 가족이 참여한 그림 편지까지 청취자의 애정이 담긴 사연들이 전기현 DJ의 목소리로 전해졌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정혜진 PD는 "청취자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 느낌이 남달랐다. 역시 아날로그가 갖는 힘이 강하다."며 "가는 붓으로 쓴 연하장이 기억에 남는다. 방송을 듣고 따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아버지를 '나의 최고'라 표현한 것까지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자와 채팅으로 사연을 보내는 세대에겐 편지는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 되었다. 정혜진 PD는 "자녀들과 둘러앉아 편지를 쓰는 시간이 좋았다는 후기가 많았다. 서로에게 선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을 녹인 손 편지는 영상화 작업을 거쳐 클래식FM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끝으로 청취자에게 보내는 정혜진 PD의 답장을 전한다. "1906년 크리스마스이브, 최초의 라디오 방송에서 발명가 레지널드 페센든은 누군가에게 달길 바라며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거룩한 밤'을 전파에 실어 보냈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마음으로 음악을 고르고, 단어를 고르는 라디오 방송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독이 밀려올 때 버튼 하나 누르면 들려올 위로의 소리가 늘 그곳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 그 어떤 삶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성을 다한 손글씨로 소통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구독자 100만 명 돌파

KBS 청주 <딩가딩가 스튜디오>

KBS 청주방송총국 유튜브 <딩가딩가 스튜디오>(이하 '딩가딩가')가 지역국 채널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초창기 KBS 프로그램의 재편집 영상을 올리던 '딩가딩가'는 2022년부터 K-POP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다. 대표 콘텐츠는 '랜덤플레이댄스'. 현장에서 무작위로 재생되는 음악에 맞춰 참가자들이 즉석 댄스 공연을 한다. 전국 각지에서 촬영이 진행되는데 아이돌 지망생, 학생 댄스 동아리, K-POP을 즐기는 외국인들까지 지원자가 항상 100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다. 특히 댓글 대부분이 영어로 달릴 만큼 해외에서 반응이 뜨겁다. 2022년 업로드된 청주 편은 조회수 1,180만 회를 넘었고, 2024년 대구 편 참가자는 현장에서 캐스팅돼 아이돌 그룹 '세이마이네임' 멤버로 데뷔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0월 청주에서 열린 '딩가딩가뮤직페스티벌'은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 축제의 장이 됐다.

기획, 섭외부터 후반 제작까지 채널을 이끌고 있는 안치훈 감독은 "시청자와 접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직접 참여하고 서로 응원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활력을 높이는 시너지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규 전 KBS 사장 별세

김인규 전 KBS 사장이 2월 3일(화)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73년 KBS 공채 1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냈고 2009년부터 3년간 KBS 사장을 역임했다. 고인의 노제는 6일(금) 오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치러졌다.

라디오 드라마 100부작 완주

KBS 울산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KBS 울산방송국이 지역방송 최초로 라디오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100부작을 완주했다. 제작을 맡은 이지향 PD는 "KBS 만이 할 수 있는 기록이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Q 드라마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이지향 PD) 2022년이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이었다. 지역에서 특집도 했지만 생각보다 별 관심이 없었다. 그때부터 KBS가 울산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

Q 어떤 내용이 담겼나?

울산을 대표하는 조선, 자동차 산업의 발전사를 실존 인물들의 육성 인터뷰, KBS 성우들의 열연을 통해 생생하게 담았다. 유튜브 버전에선 기록 영상과 AI로 재현한 역사 속 인물, 성우들의 연기 장면 등을 더해 또 다른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다.

Q 지역국 여건상 제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옛 음성자료를 카세트테이프에 재녹음하고 파일로 변환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녹음 장소가 없어 외부 스튜디오를 찾아 헤맸다. 인력 상황도 열악하다. 아나운서인 제가 라디오 진행과 PD를 하고 있고, 지역 TV 프로그램이 4개인데 PD는 1명뿐이다. 드라마 만드는 과정 자체가 '눈물겨운 드라마'였다.



Q 방송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은?

"울산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줬다.",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방송물은 책으로도 출간됐다. 무엇보다 'KBS가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다. ▶ [ulsan.kbs.co.kr](https://www.ulsan.kbs.co.kr)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복수로 엮인 두 여자의 치명적 워맨스 **붉은진주**

KBS 일일드라마



비밀과 욕망이 뒤엉킨 복수 연대기가 시작된다!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가 거짓 신분으로 돌아온 두 여자의 강렬한 복수 서막을 알렸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버린 그들의 운명

배우 박진희는 쌍둥이 언니 '명희'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단희'를 연기한다. 평범한 가정을 꿈꿨지만 숨겨진 진실과 마주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은 언니. 그의 복수를 위해 단희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언니의 이름으로 거대 재벌 '아텔 그룹'에 입성한다. 정교하게 쌓아 올린 단희의 서사가 박진희의 내공 깊은 연기와 만나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또 다른 복수의 축, 대학생 백진주는 남상지 배우가 맡았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신분과 이름을 모두 버리고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 리'로 다시 태어난 그녀. 복수를 꿈꾸며 아텔 그룹에 들어가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와 뜻밖에 찾아온 사랑 사이를 오가며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배우 최재성과 김희정은 아텔 그룹 회장 박태호와 아내 오정란 역으로 재벌 부부의 악역 케미를 보여주며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백진주와 만나 자유를 꿈꿨지만 의문의 사건에 휘말리며 진실을 알게 되는 그룹 후계자 박민준(배우 김경보), 백진주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친구 최유나(배우 천희주) 등 신예와 연기파 배우들의 시너지도 관전 포인트다.

“치열한 심리전과 폭발적인 연기 기대”

2TV 새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는 <결혼하자 팽팡아!>, <우당탕탕 패밀리> 등에서 감각적인 연출을 선보인 김성근 PD와 섬세한 집필력을 지닌 김서정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김 PD는 “복수로 시작된 주인공들의 관계가 갈등을 넘어 연대와 이해로 확장되고, 그 안에서 워맨스(여성 간 친밀하고 깊은 우정을 이르는 말)가 촘촘하게 그려진다.”며 “자신의 비밀은 지키면서도 상대의 비밀을 파헤쳐야 하는 치열한 심리전에 두 배우의 폭발적인 연기가 더해져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2월 23일(월) 저녁 7시 50분 첫 방송 **KBS 2TV**

명품 과학 쇼의 탄생 **사이언스 위**



과학은 어렵고 딱딱하다. 그래서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안내자'가 중요하다. KBS 1TV 8부작 다큐멘터리 <사이언스 위:거인의 전쟁>이 최고의 안내자로서 당신을 과학의 세계로 초대한다.

미시 세계의 법칙을 둘러싼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양자역학 전쟁, 인류의 수명을 늘린 파스퇴르 대 코흐의 세균 전쟁, 테슬라와 에디슨의 불꽃 튀는 전

기 전쟁까지. <사이언스 위:거인의 전쟁>은 인류 지성을 뒤흔든 과학계 거인들의 논쟁을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다.

배우 조우진이 '스토리텔러'로 시청자와 함께한다. 과학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질문하고, 목격하고, 사유한다. 그의 명품 연기로 되살아난 과학사의 결정적 순간들은 정교한 무대와 카메라 동선, 조명, 음악 등 KBS만의 노하우가 더해져 한 편의 드라마가 된다. 딱딱한 이론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질문과 실패, 충돌을 겪은 과학계 거인들의 휴먼스토리로 채워져 과학이 어렵기만 했던 시청자들도 충분히 흥미를 갖고 몰입할 수 있다. 치열한 장면 뒤에 숨은 복잡한 이론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짚어주는 해설자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유튜버 김재혁(활동명 궤도)이 나섰다.

<사이언스 위:거인의 전쟁>은 현대 과학의 아이콘 아인슈타인과 젊은 천문학자 허블의 '우주 전쟁'(1월 29일(목)), 생명의 비밀에 도전한 왓슨과 크릭의 'DNA 전쟁'(2월 5일(목))을 흡입력 있게 그려냈다.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다음 과학 전쟁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 1회~4회 목요일 밤 10시(~2/19)
5회~8회 토요일 저녁 8시 10분(~3/21) **KBS 1TV**
▶ **KBS다큐** / www.kbs.co.kr <사이언스 위>